

干支의 意義 및 說文解字의 十干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윤창열*

A Study on a meaning of Heavenly stems and Earthly branches and Seolmunhaeja's Ten heavenly stems.

Yun Chang-Yeol*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Objective : Heavenly stems and Earthly branches is a tool used for understanding the virtue of Yin Yang and Five elements. Korean medicine understands the changes in Wuyun through the Ten Heavenly stems, and understand the changes of Liuqi through the Twelve Earthly branches.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definitions of Heavenly Stems and Earthly branches and the concept of each of the 10 stems is of vital importance.

Method : The paper first reviews the origin,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Heavenly stems and Earthly branches before studying the definitions of the stems and branches as laid out in the works of Yu Onseo, Lee Samun, and Han Dongseok. The paper then reviewed the concept of the each of the ten stems through researching the texts of Seoulmunhaeja, the annotations of the four great Seolmuns, and the texts of Jeongyeokwonui.

Result & Conclusion : Heavenly stems and Earthly branches have been in use since more than 6,000 years ago. The central numbers in the changes of Heaven and Earth are five and six. Each number functions with duality, yin and yang, meaning there are ten Heavenly numbers ($5 \times 2 = 10$) and 12 Earthly numbers ($6 \times 2 = 12$) which oversees all of the cosmic changes. Stems become the body and signifies water. Branches become the use and signifies divided fire. The meanings of the letters Gab Eul Byeong Jeong Mu Gi Gyeong Sin Im Gye originate from the one year life of a tree which grows, bears fruits, processes Yang qi, and awaits for the next spring. The reason a tree is used is because there is nothing better in studying in detail the changes of a living being through a year.

Keywords : Ten Heavenly stems, Twelve Earthly branches, Seolmunhaeja, Seolmun of four major people, Jeongyeokwonui

I. 序 論

인간과 만물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살다가 자연 속으로 사라져 간다. 따라서 천지자연의 본체와 변화질서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주의 본체는 太極이고 陰陽으로 分化하고 五行으로 變化作用한다. 태극은 理이고 道이며 1로 상징되니 1태극은 分化이전의 모습이요, 陰陽은 氣이고 상대적이며 2로 나타나 陽의 모습은 |로, 음의 모습은 -로 상징 할 수 있다. 陰陽이 結合하여 十字의 모습을 이룬 것이 五行이니 十字의 동서남북과 中央이 각각 木金水火土를 상징한다.

陰陽과 五行의 作用原理를 數와 干支와 卦로 파악할 수 있으니 음양·오행의 變化하는 모습은 數와 數式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니 河圖와 洛書의 모습이고 음양과 오행의 德은 天干과 地支에서 나타나며 음양과 오행의 象은 8卦와 64卦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中國에서 10干과 12支를 처음으로 설명한 서적은 司馬遷의 『史記·律書』이고 이어서 班固가 『漢書·律曆志』에서 언급하였으나 내용이 간략하다.

後漢時代 中期的 許慎은 『說文解字』를 지어 10干과 12支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는데 그 의의가 자못 크다. 그리고 19세기 말엽 十清 李斯文은 『正易原義』를 지어 干支를 해설하였으나 이것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年, 月, 日, 時의 변화를 干支를 가지고 說明하였고 이로부터 四柱를 세워 사람의 運命을 推算하였으며 의학에서는 10간을 통해 五運의 변화를 파악하고 十二支를 통해 六氣의 변화를 파악하여 그 해의 기후변화를 추측하였고 이를 생리·병리·진단·치료에 응용하여 干支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許慎이 설명한 10干과 12支는 清代에 이르러 說

文四大家가 出現하여 각각 상세한 주석을 加하였다. 따라서 10간과 12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0간과 12지를 최초로 해설한 『說文解字』의 원문뿐만 아니라 說文四大家의 주석을 모두 참고해야 전면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다.

說文四大家는 江蘇 金壇의 段玉裁(1735~ 1815), 山東 曲阜의 桂馥(1736~ 1805), 山東 安邱의 王筠(1784~1854), 江蘇 吳縣의 朱駿聲(1788~1858)이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를 짓고 桂馥은 『說文解字義證』을 짓고 王筠은 『說文解字句讀』 등을 짓고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을 지어 『說文解字』를 注釋하고 未備點을 보완하였다.

한의학은 연구함에 있어 干支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고 특히 『說文解字』에 있는 干支의 이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著者는 10干과 12支에 대하여 두 편의 논문을 준비하였다. 이번에는 먼저 干支에 대한 意義와 10干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였는데 먼저 干支의 由來와 歷史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十干과 十二支의 意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干과 支의 개념을 『說文解字』, 『正易原義』, 『宇宙變化的原理』 등의 내용을 통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에 대하여 『說文解字』 본문의 내용을 자세한 번역을 통해 대의를 살펴보고 四大家의 出生順에 따라 段玉裁, 桂馥, 王筠, 朱駿聲의 注釋 중 본문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번역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찰을 통해 10干 본문의 내용과 주석가들의 내용을 취합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干支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간지와 운기에 관한 연구’¹⁾ 및 ‘『소문입식운기론오(素問入式運氣論奧)』와 『오행대의(五行大義)』의 오행(五行) 및 간지(干支)에 대한 해석(解釋) 비교(比較) 연구(研究)’²⁾ 등이 있었지만 干支의 意義와 說文四大家의 주석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자못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E-mail : yooncy@dju.co.kr, Tel : 042-280-2601.

Received(10 October 2017), Revised(7 November 2017),

Accepted(14 November 2017)

1) 윤창열. 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87.

2) 백유상, 김도훈. 『소문입식운기론오(素問入式運氣論奧)』와 『오행대의(五行大義)』의 오행(五行) 및 간지(干支)에 대한 해석(解釋) 비교(比較) 연구(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3). pp.81-99.

다. 주석의 내용은 분량이 많으므로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만을 선택하였고 10干 모두에 『正易原義』의 내용도 추가하였다.

2. 干支의 由來와 歷史

『通鑑』의 「黃帝紀」에 이르기를 “命大撓作甲子”라 하고 「外紀」에 “帝命大撓하여 探五行之情하고 占斗剛所建하여 始作甲子”³⁾라 하였으며 『史略』에서도 “命大撓하여 占斗建하여 作甲子”⁴⁾라 하여 일반적으로 黃帝가 그의 臣下인 大撓에 命하여 大撓가 최초로 五行을 관찰하고 북두칠성의 운행을 고찰하여 天干과 地支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대체로 十干이 먼저 발명되고 다시 十二支가 발명되었으며 다음으로 甲子(干支相合)가 발명된 것으로 추측된다. 일찍이 西紀前 1766~1122年의 殷商代에 이미 干支, 甲子가 사용되었다. 十干은 당시에 商王朝 世係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成湯의 이름은 天乙이고 그의 아들들은 太丁, 外丙, 中壬이었다. 그리고 孫子의 이름은 太甲, 曾孫의 이름은 沃丁, 太庚이며 이후 少甲, 雍己, 太戊, 仲丁, 外壬, 河亶甲, 祖乙, 祖辛, 沃甲, 祖丁, 南庚, 陽甲, 盤庚, 小辛, 小乙, 武丁, 祖庚, 祖甲, 廩辛, 庚丁, 武乙, 太丁, 帝乙을 거쳐 마지막 紂 帝辛에 이르기까지 모두 天干으로 命名되어 있다. 은대 왕들의 이름에 十干이 사용된 까닭은 十干은 왕들이 죽은 날들로 그 날짜를 근거로 각 왕들의 제사를 지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干支甲子는 曆法의 발전을 따라 曆法方面에 보편적으로 응용되었다.⁵⁾

3. 十干, 十二支의 意義

먼저 왜 천간은 10개로 되어 있고 地支는 12개로 이루어져 있는 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에서 10까지의 수는 河圖를 구성하는 수로써 만물이 분열하였다가 통일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기본수이

다. 이들 수는 다시 음양의 원리로 本, 中, 末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과 2는 창조 의 근본인 體가 되고 3에서 8까지는 변화의 中心이 되고 9와 10은 분열의 극에서 통일로 전화하는 末數가 된다.

3에서 8까지의 변화의 中心數는 다시 변화의 기본수인 3와 4, 변화의 中心의 中心數인 5와 6, 그리고 변화의 완성수인 7과 8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주의 변화는 天地의 變化이다. 천지의 변화에서 中心을 이루는 것은 天五 地六의 오운육기의 운동이다. 그런데 모든 변화는 음양 운동을 한다. 따라서 天五의 오운에 태과 불금의 음양이 있으니 $5 \times 2 = 10$ 이 되고 地六의 육기에 正化와 對化의 음양이 있으니 $6 \times 2 = 12$ 가 되어 하늘의 모든 변화는 10으로 귀결되고 땅의 모든 변화는 12로 귀결된다. 그리고 天地의 변화는 각자 변화하면서도 일체가 되어 작용함으로 우리는 干支가 相合한 60갑자를 가지고 天地의 모든 변화를 파악 할 수가 있는 것이다.

劉溫舒는 10干과 12支의 德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⁶⁾

天氣가 始於甲干하고 地氣가 始於子支者는 乃聖人이 究于陰陽重輕之用也니

천기가 갑에서 시작하고 지기가 자에서 시작하는 것은 성인이 천지음양지기의 경중의 작용을 추구한 것이니

著名以彰其德하고 立號以表其事니라

십간의 명칭을 드러내어 십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덕을 밝혔고 십이지의 이름을 세워 십이지 각자가 주관하는 일을 표시한 것이다.

由是로 子甲相合然後에 成其紀하니

이로 말미암아 천간과 지지가 결합한 뒤에 육십갑자가 이루어지나니

遠可步於歲而統六十年하고 近可推於日而明十二時하니

3) 松下見林. 運氣論奧疏鈔卷之二. 미상. 1665. p.2.

4) 曾先之. 史略諺解. 서울. 世昌書館. 1982. pp.5-6.

5) 尹暢烈著. 增補版 醫哲學. 대전. 주민출판사. 2011. p.115.

6)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北京. 學苑出版社. 2010. pp.16-17.

멀리까지 미루어 보면 매년의 기운을 헤아릴 수 있어 육십년을 낱날이 알 수 있고 가까이 살펴보면 매일의 기운을 헤아려 알 수 있어 하루 십이시의 기운도 알 수 있으니

歲運之盈虛와 氣令之早晏과 萬物生死를 將今驗古하야 咸得而知之니라

매년 오운의 태과 불급과 육기가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와 만물의 생사영고를 지금에서 옛날을 조사하여 모두 다 알 수가 있다.

非特是也라 考其細而知人未萌之禍福하고 明其用而察病向往之生死하니 則精微之義가 可謂大矣哉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간지의 이치를 자세히 고찰하면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화복을 미리 알 수도 있고 간지의 작용에 밝으면 병의 예후에 따른 생사를 판단할 수 있으니 정미로운 뜻이 정말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대해 岡本爲竹은 『運氣論奧診解』를 지어 해설을 하였는데 단락별로 핵심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 陽數는 一, 九, 三, 七, 五인데 一과 九, 三과 七, 五와 五는 相合하여 十이 되므로 十干은 陽數에 의해 이루어지고 天氣에 屬한다. 陰數는 四, 八, 十, 二, 六인데 四와 八, 十과 二, 六과 六은 相合하여 十二가 되므로 十二支는 陰數에 의해 이루어지고 地氣에 屬한다. 輕淸한 陽氣는 天이 되고 重濁한 陰氣는 地가 된다. 陰陽重輕之用은 天地陰陽의 功能이란 뜻이다.

• “名”은 十干의 명칭을 말한다. “德”은 十干 各自가 가지고 있는 德이다. “號”는 十二支의 名號를 가리킨다. “事”는 十二支 各自가 주관하는 事理를 가리킨다. 十干은 天에 屬해 陽道가 되고 十二支는 地에 屬해 陰道가 되므로 干에 대해서는 德이라 稱하고 支에 대해서는 事라고 稱한 것이다.

• 十干은 天에 屬하고 十二支는 地에 屬한다. 天地가 그 기운을 合하여 作用하므로 干支도 역시 結

合하여 活用한다. 十二支는 子에서 시작되고 十干은 甲에서 시작된다. 干支가 配合되어야만 六十의 紀數를 組成한다. 甲子에서 始作하여 다시 甲子에 이를 때까지의 合計가 六十이 되는데 이러한 干支의 配合를 一紀라 한다. “其紀”는 六十甲子를 指摘해서 말한 것이다.

• “遠”은 매년의 氣運을 헤아려 갑자기 일주하는 60년을 살피고, “近”은 매일의 氣運을 헤아려 하루 12시간의 작용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 “盈”은 太過이고 “虛”는 不及이다. 十干에 依해 매년 五運의 太過와 不及을 알 수 있으니 甲, 丙, 戊, 庚, 壬은 太過之運이고 乙, 丁, 己, 辛, 癸는 不及之運이다. 三陰三陽 六氣의 寒, 暑, 燥, 濕, 風, 火의 化令은 運行時에 早晏의 차이가 있는데 이도 每歲에 所屬된 十干에 의해 알아 낼 수가 있다. 甲, 丙, 戊, 庚, 壬의 해에는 氣令의 運行이 빠르고 乙, 丁, 己, 辛, 癸의 해에는 氣令의 運行이 늦다. 萬物의 生榮死枯도 干支가 結合된 氣運으로 부터 推測하여 알아 낼 수 있다. 이 뜻은 十干, 十二支 配合之道에 의해 歲運의 過與不及, 六氣化令의 早晏을 알아 낼 수 있으며 萬物의 生死도 將今驗古해서 알아 낼 수가 있다는 말이다. “將今驗古”는 萬古의 歲運을 지금의 시점에서 옛날의 精確을 다 추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考其細와 明其用은 干支의 자세한 이치와 功用을 고찰하고 밝힌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의 禍福을 미리 알고 질병의 예후에 따른 生死까지도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干支 속에는 至精至妙한 義理가 존재하고 있으니 이것이 干支功用의 위대한 功德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干과 支의 개념

『說文解字』에서는 干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원문의 번역은 『文白對照說文解字譯述』을 참고 하였다.

干(干)은 犯也라. 从反入从一이라.⁸⁾

7) 岡本爲竹. 運氣論奧診解 卷之一. 미상. 1704. pp.60-64.

[번역] 干은 觸犯과 冒犯의 뜻이다. 指事字로 反入은 들어간다는 뜻이고 一은 物體의 表面을 나타내니 물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干의 뜻이다.

甲骨文과 金文에서 干의 모습은 一種의 兵器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楊樹達은 물건이 가지가 나누어져서 사람을 찌를 수 있고 자루가 있는 형태를 나타낸다⁹⁾고 하였다.

[段玉裁] · 反入은 위쪽을 범한다는 뜻이다.(反入者는 上犯之意라)¹⁰⁾

[桂馥] · 干은 犯也라는 곳이 戴侗이 말하기를 “蜀本 說文에서는 ‘干은 循也’라고 되어있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전쟁을 할 때는 干(방패)을 잡아 스스로를 가리면서 전진하여 적을 범한다. 이 때문에 干冒, 干犯의 뜻이 된다.(犯也者는 戴侗曰蜀本說文에 曰干은 盾也라하니라 案戰者는 執干自蔽하야 以前犯敵 故로 因之爲干冒 干犯이라)

· 一의 뜻은 그친다는 것이다. 거꾸로 들어가는 것이 干字의 뜻이다.(從一은 止也라. 倒入이 爲干字意也라)¹¹⁾

『東亞漢韓大辭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²⁾

一+丁 → 干. ‘一’은 방어해야 할 목표를, ‘丁’은 ‘丫’로 ‘入’자를 거꾸로 해놓은 글자 모양.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을 나타내어 ‘범하다’, ‘어기다’ 등의 뜻으로 발전하였다.

『說文解字』에서 支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支(彘)는 去竹之枝也라 𠄎手持半竹이라

8) 段玉裁本, 朱駿聲本은 𠄎一从反入으로, 桂馥本, 王筠本은 从反入从一로 되어 있다.

9) 李恩江 賈玉民主篇. 文白對照說文解字譯述. 鄭州. 中原農民出版社. 2002. p.196.

10)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87.

11) 桂馥撰. 說文解字義證. 濟南. 齊魯書社. 2013. p.185.

12) 동아출판사한한대사전편찬부. 동아한한대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2. p.572.

[번역] 支는 대나무의 가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會意字로 손에 竹이라는 글자의 반(彘)을 가지고 있는 뜻이다.

『동아한한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³⁾

十+ 又→支. ‘十’은 ‘个’로 竹의 半임을 나타내고 ‘又’는 手로 가진다는 뜻. 그래서 ‘支’는 대나무(竹)의 한쪽가지를 나누어 손에 쥐고 있다는데서 ‘나누다, 가르다’ 등의 뜻을 가진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說文解字』의 干의 뜻은 범하다, 뚫고 들어가다의 의미이고 支는 글자의 유래만을 밝히어 10干, 12支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듯하다.

『正易原義』에서는 干과 支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⁴⁾

干은 一자와 十자가 결합된 것이니 天干이 10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다. 또 犯한다는 뜻이 있다. 曆에서는 幹이라 하였으니 幹은 나무의 몸통이니 10幹은 乾(하늘)의 體라는 뜻이 된다. 幹자와 통하고 또 干支와도 통한다.(干은 從一從十이니 天干一十之義라 又犯也라. 曆作幹하니 幹은 木之體니 十幹은 爲乾之體之義也라 幹通이오 又管通이라)

支는 十자와 又자가 결합된 것이니 地支가 12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 支는 지탱한다는 뜻이 있다. 曆에서는 枝라 하였으니 枝는 나무의 작용이니 12枝는 坤(땅)의 작용이라는 뜻이 된다. 대저 천지의 작용은 동방으로부터 시작하고 동방은 木이 위치하기 때문에 幹枝 2글자는 나무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支는 從十從又니 地支十有二之義라 又撐也라 曆作枝하니 枝는 木之用이니 十二支는 爲坤之用

13) 동아출판사한한대사전편찬부. 동아한한대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2. p.752.

14) 李景直. 正易原義. 서울. 東文館. 1913. p.134.

之義也라 夫天地之用은 自東始之而東은 木位故로 幹枝 二字는 盖取諸木也라)

위의 내용은 干支 자체에 10干, 12枝의 뜻이 있고 干은 犯의 뜻이 있어 땅으로 내려와 작용하고 支는 撐의 뜻이 있어 하늘의 기운을 받아 작용하며 干은 幹이고 幹은 木之體로 乾體의 뜻이 있고 支는 枝이고 枝는 木之用, 坤用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또 天地의 작용이 모두 동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幹(幹)枝란 글자가 모두 木에서 뜻을 취하였다고 하였다. 대단히 깊은 경지에서 干支를 取象 설명한 내용이라 사료된다.

韓東錫은 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⁵⁾

“천간이란 개념은 천간(天幹)이라는 뜻이니 간(干)자의 뜻은 줄거리[幹]이다. 즉, 천간이란 것은 천기(天氣)가 운행하는 줄거리란 말이다. 또한 간자(干字)를 취상할 때에 ‘十’자와 ‘一’자를 합하여서 간자(干字)를 만든 것이다. 그 이유는 十土 위에 一水가 가해짐으로써 干(幹)이 된다는 말이다.”

“지지(地支)라는 ‘支’字는 지자(枝字)의 뜻과 동일하다. 천간(天干)을 간(幹)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엽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반면으로 ‘支’자의 象을 보면 十土又의 상을 취하고 있다. 그 뜻은 ‘支’字는 十土(未土)가 ‘又’의 작용(又의 의미는 再)을 하는 상을 취하였다는 말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십토가 又의 작용을 할 때에, 즉 통일작용을 시작할 때에 만물이 가장 무성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支’작용의 시초인 것이다.”

위의 내용은 天干은 天幹으로 천기가 운행하는 줄거리가 되고 十土위에 一水가 가해져서 干이 된다는 뜻은 天一生水의 뜻으로 통일에서 분열을 시작한다는 의미인 듯하다. 또 地支는 땅에서 枝葉처럼 무성하게 번성한다는 뜻이 있고 10未土가 다시 작용

을 시작한다는 것은 地二生火의 의미로 무성하게 분열되었던 만물이 통일을 시작한다는 뜻인 듯하다. 즉 한동석은 干은 통일된 水의 의미로, 支를 분열된 火의 의미로 보고 있다.

5. 天干 각각의 意味

먼저 朱駿聲이 『說文解字』와 末尾에 있는 간지 22개의 명칭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⁶⁾

내가 일찍이 말한 바가 있다. 『說文解字』一書는 그 공덕이 禹입금보다 아래에 있지 않다. 오직 간지 22개의 글자는 허신이 구설을 답습하고 잘못된 위치에 의거하여 대체적으로 모두 잘못 해석하고 건강부회한 곳이 있다. 그러나 별도로 540부수의 끝에다 붙여 놓은 것은 여전히 타당하지 아니함이 있다. 만약 글자를 고증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수정하여 바로 잡는다면 아마 허신(숙중은 허신의 자)의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멸되지 아니할 (불후의) 책이 작은 잘못 때문에 크게 온전한 것에 누가 되는 데에는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다.(嘗謂說文解字一書는 功不在禹下라 惟幹枝二十二文은 許君이 因仍舊說하고 膠據緯書하야 類皆穿鑿傳會라 然이나 其別附於五百四十部之末은 意仍有未安也라 倘得有考文之責者가 釐而正之면 庶叔重歷劫不磨之書가 不至以小疵累大醇云이라)

비록 허신이 잘못 해석한 곳이 있을지라도 여러 주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바로 잡는 것은 후학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1) 甲

『說文解字』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원문은 段玉裁本을 기준으로 하였고 번역은 역시 『文白對照說文解字譯述』을 위주로 하였다.

甲(甲)은 東方之孟으로 陽氣萌動하니 木戴孚甲之象이라 大一經曰人頭空이 爲甲이라 하니라.

15) 韓東錫. 宇宙變化的 原理. 서울. 大原出版社. 2001. pp.151-152.

16)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北京. 中華書局. 1998. p.90.

[번역] 甲은 天干의 첫째 자리로 10天干을 五方에 배속할 때 甲乙은 동방이 되니 甲이 동방의 머리가 되고, 4계절을 五方に 배속할 때 東方은 봄에 속하고, 五行은 五方에 배속할 때 동방은 木이 된다. 봄에는 陽氣가 上升하고 초목이 싹이 터서 움직이기 때문에 글자의 모습이 초목이 처음 생하여 싹이 올라올 때 위에 껍질을 이고 있는 형상이 된다. 孚甲은 씨앗의 껍질이니 象形字이다. 『태일경』에서는 사람의 머리가 인체의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甲에 배합되고 甲의 모양은 사람의 머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段玉裁] · 甲 東方之孟 陽氣萌動 : 『史記律書』에서 “갑은 만물이 씨앗의 외피를 뚫고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漢書律曆志』에서 “甲에서 싹이 튼다.”하였다.(史記律書에 曰甲者는 言萬物이 剖符甲而 出也라하고 漢書律曆志曰 出甲於甲이라하니라)

『禮記·月令』에서 “맹춘의 달에 천기는 하강하고 지기는 위로 올라가 천지기운이 함께 조화됨에 초목이 싹이 터서 움직이다”하였다.(月令曰孟春之月에 天氣下降하고 地氣上騰하야 天地和同에 艸木萌動이라하니라)

· 从木戴孚甲之象 : 孚는 알껍질이다. 孚甲은 지금 껍질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초목이 처음 생겨날 때 혹 머리에 종자를 이며 혹 먼저 그 잎사귀를 드러내기 때문에 글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 아래는 나무에 줄기가 있는 모습이고 위에는 껍질이 아래를 덮고 있는 모습이다.(孚者는 卵孚也니 孚甲은 猶今言 殼也라 凡艸木初生에 或戴種於顛하며 或先見其葉故로 其字像之라 下像木之有莖하고 上像孚甲下覆也라)

· 太一經曰 : 『한서·예문지』를 보면 陰陽家에 大壹兵法 一篇이 있고 五行家에 泰一陰陽 23卷, 泰一 29卷이 있다 하였다. 그렇다면 허신이 『大一經』이라 한 것은 대개 이러한 종류일 것이다.(攷藝文志컨대 陰陽家에 有大壹兵法一篇하고 五行家에 有泰一陰陽 二十三卷과 泰一 二十九卷이라하니 然則許僞大一經者는 蓋此類라)

· 人頭空爲甲 : 空은 옛글자이고 腔은 지금 글자이다. 허신이 頭空, 履空, 領空, 脛空이라 한 것은

모두 지금의 腔이다. 사람의 頭空은 해골을 말한다.(空腔은 古今字라 許言頭空 履空 領空 脛空은 皆今之腔也라 人頭空은 謂髑髏也라)¹⁷⁾

[桂馥] · 位東方之孟 : 東方은 甲이 孟이 되고 卯가 仲이 되고 乙이 季가 된다.(按컨대 東方은 甲爲 孟이오 卯爲仲이오 乙爲季라)

· 陽氣萌動 : 陽氣萌動은 十幹은 甲丙戊庚壬이 陽이 되기 때문이다.(陽氣萌動者는 十幹은 以甲丙戊庚壬으로 爲陽이라)

· 從木戴孚甲之象 : 從木戴孚甲之象이라는 것은 본서(『설문해자』)의 稭(겉껍질)니 稭(미곡의 껍질)의 뜻이다. 옥편에서 稭는 甲의 뜻이고 통상적으로 孚라 쓴다 하였다.(從木戴孚甲之象也者는 本書의 稭니 稭也라 玉篇에 稭는 甲也니 通作孚라 하니라)

『석명』에서 말하였다. 갑은 씨껍질이니 만물이 씨껍질을 풀고서 생하는 것이다. 또 이르기를 “孚가 孚의 뜻이니 孚甲은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覆가 孚의 뜻이니 孚甲처럼 사물의 밖에 있는 것이다.”라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鎧(갑옷)를 或 甲이라 하니 사물이 孚甲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다.”라 하였다.(釋名에 甲은 孚也니 萬物이 解孚甲而 生也라하고 又云 孚가 孚也니 孚甲은 在上稱也오 又云 覆가 孚也니 如孚甲之在物外也오 又云 鎧或謂之甲이니 似物孚甲以自禦也라하니라)

· 甲象人頭 : 내가 살펴 보건대 이것은 緯書에서 사람의 몸을 배합시킨 것과 같다.(馥案 此는 猶緯書 配身也라)¹⁸⁾

[王筠] · 甲 位東方之孟 : 살피건대 甲丙庚壬 아래에는 동서남북을 말하고 乙丁辛癸 아래에는 춘하추동을 말하였으니 서로 보충해주는 말이다. 아마 이곳의 孟은 丙庚壬이 모두 孟이 되는 것을 보이고 겸하여 乙丁辛癸가 仲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案컨대 甲丙庚壬下엔 言東南西北而乙丁辛癸下엔 言春夏秋冬하니 作互相備之詞라 豈此言之孟하야 以見 丙庚壬之皆爲孟하고 兼以見乙丁辛癸之爲仲邪야)¹⁹⁾

17)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740.

18) 桂馥撰. 說文解字義證. 濟南. 齊魯書社. 2013. p.1287.

[朱駿聲] 내가 살피건대 甲은 갑옷이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駿按건대 甲은 鎧也니 象戴甲于首之形이라)²⁰⁾

[正易原義] 甲은 만물의 껍질이 갈라지고 쪼개져서 처음 나오는 모습이니 先天에 해당하는 10干的 머리가 된다. 옛 천간의 명칭은 연봉이니 시작한다는 뜻이다.(甲은 萬物莖甲이 剖坼하여 初出之象이니 先天十干之首라 古干名은 闕逢이니 始也라)²¹⁾

2) 乙

乙(乙)은 象春草木이 冤曲而出에 陰氣尙彊하여 其出乙乙也라 與 | 同意라 乙承甲하니 象人頸이라

[번역] 乙은 천간의 2번째 자리이다. 象形字로 봄에 초목의 싹이 꾸불꾸불 자라날 때에 陰氣가 아직 강하여 나온 싹이 자라는 것이 구부러져 힘이 드는 모습이다. 초목이 성장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감으로 | (음신)이라는 글자와 뜻이 대체로 같다. 성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부러진 모습을 띤다. 乙은 甲을 계승하여 사람의 頸部를 상징한다.

[段玉裁] • 乙 象春草木 冤曲而出 陰氣尙彊 其出乙乙也 : 冤이라는 말은 울체되었다는 뜻이고 曲이라는 말은 구부러졌다는 뜻이며 乙乙은 어렵게 나오는 모습이다.(冤之言은 鬱이오 曲之言은 誨也오 乙乙은 難出之貌라)

『史記』에서 “乙은 만물이 힘겹게 구부러져서 생겨나는 것이다.”라 하였고 『漢書』에서 “乙에서 구부러져서 떨어져 나온다”고 하였다.(史記曰 乙者는 言萬物이 生軋軋也라 하고 漢書曰 奮軋於乙이라하니라)

• 「月令」의 鄭注(鄭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乙이라는 말은 삐걱거린다는 軋의 뜻이다. 이때에 만물이 모두 싹을 틔워 나오에 식물이 어렵게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마치 수레가 땅에서 굴러갈 때 잘 굴러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月令 鄭注云 乙之

言은 軋也라 時萬物이 皆抽軋而出에 物之出土 艱屯하여 如車之輻地澁滯라)

• 與 | 同意 : 與 | 同意는 아래에서 위로 通하는 | 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다. 乙은 아래에서 나오나 위의 陰에게 막혀 있으므로 그 글자를 쓸 때 옆으로 기울어지게 쓰는 것이 마땅하다.(與 | 同意는 謂與自下通上之 | 로 同意也라 乙自下出이나 上礙於陰하니 其書之也 宜倒行이라)

• 乙承甲象人頸 : 이하의 모든 내용은 “大一經曰”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다.(以下는 皆蒙大一經曰하여言之라)²²⁾

[桂馥] • 十幹에서 乙丁己辛癸는 陰이 된다(十幹은 以乙丁己辛癸로 爲陰이라).

• 象春草木 冤曲而出 : 本書(『설문해자』)에서 “乙(좁을액)은 乙字가 있으니 좁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象春草木 冤曲而出者는 本書에 乙은 從乙하니 云陰也라하니라)

『석명』에서 “을은 삐걱거린다”는 軋字와 뜻이 비슷하니 스스로 힘겹게 싹이 터서 나오는 것이다.(釋名에 乙은 軋也니 自抽軋而出也라)

• 與 | 同意 : 與 | 同意의 | 은 마땅히 卍로 해야 한다. 徐鍇의 『說文解字繫傳』에서 발음이 徹이니(| 과 卍) 함께 出의 뜻이 된다고 하였다. 내가 살피건대 屯자에 卍이 있으니 초목이 처음 나올 때 屯然히 어려운 모습을 나타낸다.(與 | 同意者는 | 當爲卍이니 徐鍇繫傳에 音徹이니 云同爲出也라하니라 夬象屯從卍하니 象草木之初生이 屯然而難이라)²³⁾

[王筠] • 乙 象春草木 冤曲而出 : 字義와 字形을 합하여 설명했기 때문에 서두에 象이라고 말했다.(合義與形而說之故로 發端에 言象이라)

• 與 | 同意 : 『說文解字繫傳』에서 | 의 音이 徹이라 했으니 이것으로써 | 은 卍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卍은 초목이 처음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出의 뜻이 있다. 屯에는 卍이 있으니 초목이 처음 생할 때 屯然히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

19) 王筠撰. 說文解字句讀. 北京. 中華書局. 1988. p.590.

20)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北京. 中華書局. 1998. p.153.

21) 李景直. 正易原義. 서울. 東文館. 1913. p.133.

22)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740.

23) 桂馥撰. 說文解字義證. 濟南. 齊魯書社. 2013. p.1287.

서 中에도 어렵다는 뜻이 있다.(與 | 同意는 繫傳曰 | 音徹이라하니 是知 | 爲中之訛라 中은 艸木之初也라 故有出意라 屯從中하니 象艸木之初生이 屯然而難故로 中亦有難意라)

[正易原義] 乙은 오행에서 동방의 木에 속한다. 만물이 始生할 때 힘들게 나와 썩어 꼬부라져 있는 것이 乙이라는 글자 모양과 같기 때문에 乙이라고 했다. 古干의 명칭은 진몽이니 푸르다는 뜻이다.(乙은 東方木行으로 始生物而軋軋하야 芽之屈이 如乙字樣故로 乙이라 古干名은 旃蒙이니 靑이라)²⁴⁾

3) 丙

丙(丙)은 位南方이니 萬物成하야 炳然이라. 陰氣初起하고 陽氣將虧오 从一入門하니 一者는 陽也라 丙承乙하니 象人肩이라.

[번역] 丙은 天干의 세 번째 자리이다. 오행학설에 의해 보면 丙은 남방에 위치한다. 남방은 또 여름에 속하고 火에 속하니 여름에 만물이 모두 자라나서 무성하게 그 強大함을 드러낸다. 이때 陰氣는 初生하고 陽氣는 極盛했다가 장차 쇠약해지려 함으로 글자의 모습이 一入門이 습하여 이루어 졌으니 會意字이다. 丙은 乙을 이어 사람의 肩部를 상징한다.

[저자주] 萬物成하야 炳然을 ‘萬物成炳이나 然이나’로 구두 할 수도 있다.

[段玉裁] • 丙位南方 萬物成炳然 陰氣初起 陽氣將虧 : 鄭玄이注를 단 『禮記·月令』에서 “丙이라는 말은 밝게 드러나는 것이다. 만물이 다 밝게 드러난다” 하였고 『史記·律書』에서 “丙은 陽의 길이 드러나고 밝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漢書·律曆志』에서 “丙에서 밝게 빛난다”고 하였다.(鄭注月令曰 丙之言은 炳也니 萬物이 皆炳然著見이라하고 律書曰丙者는 言陽道著明이라하고 律曆志曰 明炳於丙이라하니라)

• 从一入門 : 3글자가 습한 會意字이다. 陽이 門에 들어가 엮드리고 숨어 장차 휴손되는 모습이다.

(合三字會意니 陽入門하야 伏藏將虧之象也라)²⁵⁾

[桂馥] • 萬物成炳然 : 萬物成炳然이라 한 것은 丙과 炳이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萬物成炳然者는 丙炳이 聲相近이라)

『석명』에서 말하였다. 丙은 빛나는 것이니 만물이 밝게 생겨나 모두 드러나는 것이다.(釋名에 丙은 炳也니 物生炳然하야 皆著見也라)

• 陰氣初起 陽氣將虧 從一入門 一者陽也 : 徐鍇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저 만물이 극도에 이르면 쇠약해지고 功이 이루어지면 떠나고 밝음이 치성하면 어두워지고 양이 극도에 이르면 음이 되나니 만물은 음이 아니면 定立하지 못한다. 여름에서 가을이 되면 만물을 수렴하고 태워 죽여서 완성을 시킨다. 門은 門과 같다. 『주역』에서 “乾坤은 변화의 門이 된다.” 하였으니 天地陰陽의 門戶는 陽의 공덕이 이루어지면 장차 문안으로 들어가게 된다.(陰氣初起 陽氣將虧 從一入門 一者陽也者는 徐鍇曰 夫物極則衰하고 功成則去하며 明盛而晦하고 陽極而陰하니 物非陰이면 不定이라 夏之有秋는 所以擎斂焦殺萬物하야 使成也라 門은 猶門也라 易曰 乾坤은 其易之門邪니 지하니 天地陰陽之門戶는 陽功成하면 將入于門也라)²⁶⁾

[王筠] • 陰氣初起 陽氣將虧 从一入門 一者 陽也 : 5월은 괘에서 垢卦(䷫)가 되니 一陰이 五陽을 만나는 것이다. 12律呂에서 5월에 속하는 유빈은 음기가 아래에서 성해짐에 양기가 (음기가) 갑자기 생겨남을 기뻐하여 그를 맞이하는 것이다.(五月은 於卦爲姤니 以一陰이 遇五陽이라. 律中蕤賓은 言陰氣蔽蕤于下에 陽喜其乍至而賓之也라)²⁷⁾

[正易原義] 丙은 남방이니 陽火가 또한 타올라 하늘까지 이르기 때문에 一자와 火자를 습하여 陽이 늠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 古干의 명칭은 유조이다. 陽道가 드러나고 밝아 모든 만물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뜻이다.(丙은 南方이니 陽火且

25)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740.

26) 桂馥撰. 說文解字義證. 濟南. 齊魯書社. 2013. p.1288.

27) 王筠撰. 說文解字句讀. 北京. 中華書局. 1988. p.590.

24) 李景直. 正易原義. 서울. 東文館. 1913. p.133.

炎하야 極於天故로 從一從火而象陽老라 古干名은 柔兆라 陽道著明하야 溫柔億兆物之義也라)²⁸⁾

4) 丁

丁(个)은 夏時에 萬物이 皆丁實이라 象形이라 丁承丙하니 象人心이라.

[번역] 丁은 천간의 4번째이다. 五行說에 따르면 丁位는 남방이고 남방은 여름에 속한다. 이때 식물이 곧게 서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丁은 丙을 이어 人心을 상징한다.

[段玉裁] • 丁實이 小徐本에는 丁壯成實로 되어 있다.(丁實이 小徐本에 作丁壯成實이라)²⁹⁾

『史記·律書』에 “丁은 만물이 싹싹하게 자라는 것이다”라 하였고 『漢書·律曆志』에 “丁에서 크게 왕성하게 된다” 하였으며 정현이 注를 단 『禮記·月令』에서 “丁의 때에 만물이 모두 強大해 진다”고 하였다.(律書曰 丁者는 言萬物之丁壯也라하고 律曆志曰 大盛於丁이라하며 鄭注月令曰 時에 萬物皆強大라하니라)

[王筠] • 『釋名』에 丁은 싹싹하다는 壯의 뜻이니 물체가 모두 강하고 싹싹하게 된 것이다.(釋名에 丁은 壯也니 物體가 皆丁壯也라)³⁰⁾

[正易原義] 丁은 불꽃이 타올라 드러난 모습이니 글자의 모양이 붉은 별이 중횡으로 교차하는 것과 같다. 또 지금의 왕성하게 타오르는 불은 모두 여기에서 취한 것이다. 古干의 명칭은 강어로 붉다는 뜻이니 만물이 강하고 튼튼한 것을 말한다. 또 주자가 말하였다. 丁은 변화기에 앞서서 거듭 告하는 것이다.(丁은 象炎上而跋現이니 字樣이 猶紅星之縱橫이라 又今之盛火는 具取諸此라 古干名은 強圍니 赤이니 言万物丁壯也라 又朱子曰丁은 所以丁寧於其變之前이라 하니라)³¹⁾

28) 李景直. 正易原義. 서울. 東文館. 1913. p.133.

29)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740.

30) 王筠撰. 說文解字句讀. 北京. 中華書局. 1988. p.591.

5) 戊

戊(ㄱ)는 中이며 宮也니 象六甲五龍이 相拘絞也라 戊承丁하니 象人齋이라.

[번역] 戊는 天干의 다섯 번째이다. 五行說에 따르면 戊土의 방위는 중앙이고 宮商角徵羽의 五音에서 宮音과 배합한다. 또 古代에 干支로 날짜를 기록했는데 이중 甲子, 甲戌, 甲申, 甲午, 甲辰, 甲寅이 있어 6甲이라 했다. 1년 365일을 4계절과 12달로 나누면 4계절에 四方이 배합되고 매 방위마다 3개월이 배속된다. 그리고 4계절을 五行에 배합하면 매 계절의 끝 18일이 중앙의 土에 속한다. 이것은 五行說에 따르면 얼굴은 사람이고 龍의 몸을 한 5명의 仙人에 의해서 관리된다고 한다. 6甲 5龍이 배합되면 대단히 뒤섞여 어지럽다. 戊자의 형태는 엮혀서 꼬여 있는 모습이다. 戊는 丁을 이어 사람의 양쪽 옆구리를 상징한다.

[段玉裁] 戊 中宮也 : 鄭玄이 注한 『禮記·月令』에서 “戊라는 글자는 무성하다는 뜻이니 만물이 다 지엽이 무성해지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漢書·律曆志』에 “戊에서 풍성하고 무성하게 된다”라고 하였다.(鄭注月令曰 戊之言은 茂也니 萬物이 皆枝葉茂盛이라하고 律曆志曰 豐楙於戊라하니라)

• 象六甲五龍相拘絞也 : 六甲은 『漢書』에 날에 六甲이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五龍은 五行이다. 水經注에서 遁甲開山圖를 인용하여 “五龍見教 天皇被跡”이라고 했다. 榮氏注에서 “五龍이 五方을 다스리니 五行神이 된다”고 하였다. 鬼谷子의 “盛神法五龍”을 陶注(陶弘景)에서 五龍은 五行之龍이다”라고 하였다. 허신은 戊자의 형태가 六甲五行이 서로 엮혀서 꼬여 있다고 말하였다.(六甲者는 漢書에 日有六甲이 是也라 五龍者는 五行也라 水經注에 引遁甲開山圖曰 五龍見教 天皇被跡이라하고 榮氏注云 五龍이 治在五方하니 爲五行神이라하니라 鬼谷子에 盛神法五龍이라하고 陶注曰 五龍은 五行之龍也라하니라 許謂戊字之形이 像六甲五行이 相拘絞也라 하니라)³²⁾

31) 李景直. 正易原義. 서울. 東文館. 1913. p.133.

[著者注] “五龍見敎 天皇被跡”은 『水經注』의 卷一 河水條 끝에 있는 말이다. 전체의 내용과 榮氏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通甲開山圖曰 五龍見敎에 天皇被跡하시니 望在無外 柱州崑崙山上이라 榮氏注云 五龍은 治在五方하니 爲五行神이라 五龍降에 天皇兄弟十二人이 分五方爲十二部하고 法五龍之跡하사 行無爲之化하시니 天下仙聖治라 在柱州는 崑崙山上하고 無外之山은 在崑崙東南萬二千里라 五龍과 天皇이 皆出此中하시니 爲十二時神也라(둔갑개산도에서 말하였다. 오룡이 몸을 나누어 가르침에 천황께서 그를 본보기로 삼아 배우시니 바라시는 것이 無外山과 柱州의 崑崙山위에 있었다. 榮氏注에서 말하였다. 五龍은 오방을 다스리니 오행신이 된다. 오룡이 하강함에 天皇의 형제 12인이 오방을 12部로 나누시고 오룡의 자취를 본받아 無爲의 교화를 행하시니 천하의 신선과 성인들이 모두 柱州의 곤륜산 위에 모여 이곳이 아주 잘 다스려졌다. 柱州는 곤륜산 위에 있고 無外山은 곤륜 동남쪽 12000리 되는 곳에 있다. 오룡과 천황이 모두 이곳에서 나오시니 12시의 神이 된다).

[桂馥] 戊 中宮也 : 『석명』에서 “戊는 무성한 것이니 만물이 다 무성해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釋名에 戊는 茂也니 物皆茂盛也라)

• 象六甲五龍相拘絞也 : 惠棟이 말하였다. 五六은 천지의 중앙이기 때문에 六甲五龍相拘絞라 했다. 龍은 辰이고 辰에는 五子가 있다. 따라서 五龍이라고 한 것이다.(惠棟曰五六은 天地之中故로 曰六甲五龍이 相拘絞라하니 龍은 辰也라 辰有五子故로 云五龍이라)³²⁾

[正易原義] 戊는 先天 중앙의 자리니 만물이 무성하게 되기 때문에 茂자를 쓰고 여기서 풀초머리를 제거한 것이다. 古干의 명칭은 착용이니 만물의 견고함을 말한 것이다.(戊는 先天中央之位니 万物茂盛故로 從茂하고 去艸라 古干名은 著雍이니 言万物之

固也라)³⁴⁾

6) 己

己(己)는 中이며 宮也니 象萬物이 辟藏詘形也라 己承戊하니 象人腹이라.

[번역] 己는 천간의 여섯 번째 자리이다. 오행설에 따르면 己는 五方에서 中, 五音에서 宮과 배합된다. 像形字로 만물이 머물러 빙빙 돌며 수렴되어 굽은 모습을 나타낸다. 만물은 土에서 생겨 土로 돌아간다. 己는 戊를 이어 사람의 腹部를 상징한다.

[段玉裁] 己 中宮也 : 『律曆志』에서 “己에서 다스려져 條理가 있다”라 하였고 『석명』에서 “己는 모두 일정한 형태가 있어 기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律曆志曰 理紀於己라하고 釋名曰 己는 皆有定形야야 可紀識也라하니라)

• 象萬物 辟藏詘形也 : 辟藏이라는 것은 머물러 빙빙 돌며 수렴하는 것이다. 글자는 굽어있는 형태를 나타낸다.(辟藏者는 盤辟收斂이니 字像其詘詘之形也라)³⁵⁾

[桂馥] • 象萬物 辟藏詘形也 : 象萬物 辟藏詘形也는 詘의 앞뒤에 빠진 글자가 있는 듯하다. 서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물은 음양지기와 더불어 갈 무리되면 흠으로 돌아간다.(象萬物辟藏詘形也者는 詘之上下에 疑有脫闕이라 徐鍇曰萬物은 與陰陽之氣로 藏則歸土라)³⁶⁾

[王筠] • 象萬物 辟藏詘形也 : 詘 위에 詰자가 빠진 듯하다. 만물은 흠에서 생겨 다시 흠으로 돌아간다. 그 머물면서 수렴하는 것이 구불구불한 모습이 되니 己字가 그것을 상징한다.(詘上似挽詰字라 萬物은 生於土하야 復歸于土라 其盤辟收斂이 作詰詘之形이니 字象之也라)³⁷⁾

34) 李景直. 正易原義. 서울. 東文館. 1913. p.133.

35)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741.

36) 桂馥撰. 說文解字義證. 濟南. 齊魯書社. 2013. p.1289.

37) 王筠撰. 說文解字句讀. 北京. 中華書局. 1988. p.591.

32)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741.

33) 桂馥撰. 說文解字義證. 濟南. 齊魯書社. 2013. p.1289.

[正易原義] 己는 사람이 입을 벌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기에 身이라고 한다. 先天位는 10干的 가운데가 되고 가운데의 10土가 되며 后天宮은 10干的 머리가 되니 주역계가 말한 10무극이 1태극으로 통일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古干의 명칭은 도유니 누렁다는 뜻이니 음기가 만물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己는 象人之張口而坐 故曰身이라 先天位는 十干之中이니 中十土也오 后天宮은 十干之首니 周子所謂無極而太極이 是也라. 古干名은 屠維니 黃이니 言陰氣殺物也라)³⁸⁾

7) 庚

庚(庚)은 位西方이니 象秋時에 萬物이 庚庚有實也라 庚承己하니 象人臍라.

[번역] 경은 천간의 7번째 자리이다. 오행설에 따르면 위치는 서방이고 가을과 배합된다. 가을에 식물이 결실하니 庚의 모습은 만물이 결실하여 과실이 주렁주렁 달린 모습이니 像形字이다. 庚은 己를 이으니 사람의 배꼽을 상징한다.

[段玉裁] · 庚 位西方 : 「律書」에서 “庚은 陰氣가 萬物을 바꾸는 것이다”라 하였고 「律曆志」에서 “庚에서 수렴되어 바뀐다”라 하였으며 「月令」의 注에서 “庚이라는 글자는 바꾼다는 것이니 만물이 모두 숙연히 바뀌어 열매가 새롭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였다.(律書曰는 庚者는 言陰氣가 更萬物이라하고 律曆志에 斂更於庚이라하고 月令注曰 庚之言은 更也니 萬物이 皆肅然更改야 秀實新成이라하니라)

· 象秋時 萬物 庚庚有實也 : 庚庚은 열매를 맺은 모습이다.(庚庚은 成實貌라)³⁹⁾

[桂馥] · 象秋時 萬物 庚庚有實也 : 『석명』에서 “庚은 바꾼다는 뜻과 같고 庚은 견고하고 강한 모습이다”라고 하였다.(釋名에 庚은 猶更也오 庚은 堅強貌也라하니라)⁴⁰⁾

[正易原義] 庚은 先天 10干的 數에서는 戊己가 歸空하여 바뀌어 일어나기 때문에 庚은 更이라고 한다. 古干의 명칭은 上章이니 음기가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先天의 공덕이 上帝에게 완성되었음을 告한다는 뜻이다.

20년에 7번의 윤달을 두어 절기와 달을 나누어 가지런히 하는 것을 一章이라 하는 것은 이것과 같다.(庚은 先天十干之數는 戊己尊空而更起故曰 庚은 更也라 古干名은 上章이니 言陰氣更萬物이오 且 先天厥功이 告成于上帝之義也라 二十年에 置七閏하야 氣朔分齊而曰一章者는 倣此라)⁴¹⁾

8) 辛

辛(辛)은 秋時에 萬物이 成而孰이라 金剛味辛하니 辛痛卽泣出이라 辛一푸하니 푸은 辜(罪와 同)也라 辛承庚하니 象人股라.

[번역] 辛은 천간의 8번째 자리이다. 오행설에 따르면 辛은 金에 속하고 五方의 서쪽, 사계절의 가을, 五味에서는 辛과 배합된다. 가을에는 만물이 자란 것이 성숙한다. 金의 성질은 剛하고 그 맛은 辛하기 때문에 어떤 과실은 매운 맛이 있다. 매운 것을 먹으면 눈물이 나오고 고통스러워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辛에는 또 고생한다는 뜻이 있게 되었다. 指事字로 一이 卍아래에 있는 것인데 卍은 罪가 되니 辛은 죄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辛은 庚을 이어 사람의 大腿部를 상징한다.

[段玉裁] · 辛 秋時 萬物 成而孰 : 「律書」에서 “辛은 만물이 새롭게 탄생함을 말한다. 따라서 신이라 한다” 하였고 「律曆志」에서 “辛에서 다 새롭게 된다” 하였으며 『석명』에서 “辛은 새로워지는 것이니 만물이 처음으로 새롭게 된 것이 다 수렴되어 성숙한다”라고 하였다.(律書에 曰辛者는 言萬物之新生故曰辛이라하고 律曆志 曰悉新於辛이라하며 釋名曰 辛은 新也니 物初新者가 皆收成也라하니라)

· 金剛味辛 : 成孰된 맛을 이른다.(謂成孰之味也라)

38) 李景直. 正易原義. 서울. 東文館. 1913. p.132.

39)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741.

40) 桂馥撰. 說文解字義證. 濟南. 齊魯書社. 2013. p.1290.

41) 李景直. 正易原義. 서울. 東文館. 1913. pp.132-133.

• 一은 陽이니 陽이 卍에 들어갔다는 것은 陽이 잘못되었음을 말한다.(一者是 陽也니 陽入於 卍은 謂之 愆陽이라)

• 卍 辜也 : 辛痛泣出은 罪人之 모습이다.(辛痛泣出은 罪人之象이라)⁴²⁾

[正易原義] 신은 10토니 익은 곡식이 낱자하게 많은 것이다. 또 토생금하여 맛이 맵기 때문에 「홍범」에서 종혁은 신미를 만든다고 하였다. 고간의 명칭은 중광이고 희다는 뜻이니 만물의 매운 기운이 막 생겨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자는 신에는 新(새롭게 한다)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辛은 十土니 爰稼粒米狼戾也라 且土生金而味辛故로 洪範曰 從革作辛이라하니라 干干名은 重光이니 白이니 言万物辛氣方生이라 故朱子曰 辛有新意라하니라)⁴³⁾

9) 壬

壬(王)은 位北方也니 陰極陽生이라 故로 易에 曰 龍戰于野라하니 戰者는 接也라 象人懷妊之形이니 承亥壬하야 以子生之叙也라. 壬은 與巫로 同意라. 壬承辛하야 象人脛라하니 脛은 任體也라.

[번역] 壬은 천간의 아홉 번째 자리이다. 오행설에 따르면 壬은 북방에 위치하고 4계절의 겨울에 배합된다. 10월은 겨울의 시작이고 月建은 亥가 되어 壬과 딱 맞게 배합되며 그 卦는 坤이 된다. 坤은 陰爻가 6개이니 陰極陽生함으로 『주역』에서 이 卦의 上六爻辭에 “龍戰于野”의 설명이 있다. 龍은 陰陽之龍을 가리키는데 卦體에 陽이 없기 때문에 들에서 싸우고 戰은 交接으로 交媾의 뜻이다. 이때는 비록 盛陰의 시기이지만 이미 陽氣가 그 속에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壬자의 모양이 사람이 임신한 모습과 같다. 象形字로 壬은 妊(임신)의 뜻이 된다. 亥와 壬이 合德하는 10월을 잇는 것이 11월이고 월건은 子가 되니 임신한 다음 자식을 낳게 되니 이것은 사람과 동물이 出産을 하는 자연스런 순서이다. 壬

字와 巫字는 모두 사람의 몸을 가지고 뜻을 취했으니 巫는 사람이 양 소매를 펼쳐 춤을 추는 모습이고 壬은 사람의 배가 볼록한 모습이다. 壬은 辛을 이어 사람의 小腿를 상징한다. 脛(사람의 小腿로 무릎 아래 다리)은 사람의 온 몸을 지탱하니 壬은 곧 任(책임을 맡아 감내하다)의 뜻이다.

[段玉裁] 壬 位北方也 陰極陽生 : 「月令」의 鄭玄注에서 “壬이라는 글자는 임신한다는 뜻이니 이때에 만물은 아래에서 회임한다”라 하였고 「律書」에서 “壬이라는 글자는 임신한다는 뜻이니 陽氣가 아래에서 만물을 잉태하여 기르는 것이다”라 하였으며 「律曆志」에서 “壬에서 임신한다”라고 하였다.(月令鄭注에 壬之言은 任也니 時에 萬物이 懷任於下라하고 律書曰 壬之爲言은 任也니 言陽氣가 任養萬物於下也라하며 律曆志曰 懷任於壬이라하니라)

『석명』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壬은 임신한다는 뜻이다. 음양이 交媾하여 물체를 임신했다가 子에 이르러 낳는 것이다.(釋名曰 壬은 妊也라 陰陽交하야 物懷妊이라가 至子而萌也라)

• 戰者接也 : 易의 戰字를 해석한 것이니 주역을 인용한 것은 陰極陽生을 증명한 것이다. 『건축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陽은 亥에서 시작하니 乾의 자리에 亥가 있다(乾亥는 모두 서북쪽이다). 「文言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陽이 없음을 의심하기 때문에 용이라 일컬었다. 허신은 亥壬이 합덕하고 亥壬이 양기를 싸서 잉태했다가 자에 이르러 낳는다고 하였다.(釋易之戰字니 引易者는 證陰極陽生也라 乾鑿度曰 陽始於亥하니 乾位在亥라 文言曰 爲其嫌於無陽 故로 稱龍이라 許君은 以亥壬이 合德하고 亥壬이 包孕陽氣라가 至子則滋生矣라하니라)⁴⁴⁾

[王筠] • 象人懷妊之形 : 壬자는 金文에 王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배가 커진 모습이다.(壬字는 金文에 作王하니 是大腹形也라)

• 承亥壬以子生之叙也 : 嚴可均이 말하였다. 『通釋』에 의거해 보면 “辛에서 陰氣가 成就함에 능히 陽을 이어 생명을 두기 때문에 辛을 이어 자식을 낳

42)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741.

43) 李景直. 正易原義. 서울. 東文館. 1913. p.133.

44)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742.

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小徐本에는 원래 承辛壬이라고 되어 있다. 내가 살펴건대 이것은 方位로 말한 것이다. 지지의 亥와 천간의 壬은 함께 북방에 있고 亥의 다음이 子이니 亥는 자식을 임신하여 아이가 구부리고 있는 모습이고 壬은 즉 妊이니 몸이 震動하여 나오려고 하는 것이니 나오면 子가 된다. 그리하여 生하는 순서라고 말했다.(嚴氏曰 據通釋 건대 辛에 陰氣成就하니 乃能承陽以有生이라 故曰承辛生子也라 하고 則小徐에 原作承辛壬이라 筠案 此以方位言也라 支之亥와 與榦之壬은 同居北方하고 亥之下는 卽是子니 亥者는 懷子咳也오 壬은 卽妊이니 謂身震動欲生也오 生則爲子矣라 故曰生之敘也라 하니라)

• 壬承辛 象人脛 脛任體也 : 上文은 方位에 의거해 말한 것이기 때문에 妊으로써 壬을 설명했고 이것은 또 『太一經』에 의거해 人身을 가리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또 任으로써 壬을 설명한 것이다.(上文은 據方位而言故로 以妊說壬하고 此는 又據太一經하야 指人身而言故로 又以任說壬也라)⁴⁵⁾

[朱駿聲] 내가 살펴 보건대 壬은 멘다는 뜻이다. 위아래는 물건이고 가운데는 사람이 물건을 멘 것을 상징한다. 六書에서는 象形이 되며 指事를 겸한다.(愚按壬은 僮何也니 上下物也오 中象人僮之라 在六書에 爲象形이니 兼指事라)

[正易原義] 壬은 크다는 뜻이니 대개 任(짐입, 大任)자의 뜻에서 취한 것이고 자리가 북방에 있으니 마침을 완성하는 大任의 뜻이 있다. 古干의 명칭은 현익이니 陽氣가 아래에서 壬養되는 것을 말한다.(壬은 大也니 蓋取任字之義而位居北하니 有成終之大任이라 古干名은 玄黓이니 言陽氣壬養於下也라)⁴⁶⁾

10) 癸

癸(癸)는 冬時에 水土平하야 可揆度(가탁)也라 象水從四方으로 流入地中之形이라 癸承壬하니 象人足이라

[번역] 癸는 천간의 10번째 자리이다. 오행설에 따르면 그 자리는 북방에 있고 계절에서는 겨울과 상합한다. 겨울에는 땅이 깨끗하여 빛나고 물은 얼어 파도가 없어 전체가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때는 다음해의 농사를 준비하고 계획한다. 따라서 癸에는 예측하고 헤아린다는 뜻이 있다. 象形字로 물이 四方에서 田地의 中間으로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癸는 위에 있는 壬을 이어 사람의 발을 상징한다.

[段玉裁] • 癸 冬時 水土平 可揆度也 : 『사기·율서』에서 말하기를 “癸라는 글자는 揆의 뜻이니 만물을 예측하고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한서·율력지』에서 “癸에서 헤아리며 기다린다”라 하였다.(律書曰癸之爲言은 揆也니 言萬物을 可揆度이라 하고 律曆志曰 陳揆於癸라하니라)⁴⁷⁾

[桂馥] • 癸 冬時 水土平 可揆度也 : 劉熙의 『석명』에서 말하였다. 癸는 헤아린다는 揆의 뜻이니 헤아리고 있다가 생하여 비로소 나오는 것이다.(釋名에 癸는 揆也니 揆度而生하야 乃出之也라)⁴⁸⁾

[正易原義] 癸는 水와 天이 합하여 된 글자니 天一이 生水하고 水六이 生木하는 뜻이다. 고간의 명칭은 소양으로 검다는 뜻이니 만물의 정황을 조용히 헤아리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주자는 “계는 변한 뒤를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癸는 從水從天하니 天一生水하고 水六生木之義也라 古干名은 昭陽이니 黑이니 言萬物之情을 可揆度이라 故朱子曰 癸는 所以揆度於其變之后라 하니라)⁴⁹⁾

6. 考察

『설문해자』에서 설명한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의 내용과 說文四大家가 주석한 내용 그리고 『正易原義』에서 설명한 十干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45) 王筠撰. 說文解字句讀. 北京. 中華書局. 1988. p.592.

46) 李景直. 正易原義. 서울. 東文館. 1913. p.133.

47)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742.

48) 王筠撰. 說文解字句讀. 北京. 中華書局. 1988. p.1292.

49) 李景直. 正易原義. 서울. 東文館. 1913. p.133.

甲은 봄이 되어 陽氣가 動함에 씨앗에서 초목의 싹이 트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공간에서 동쪽이 머리가 되고 계절에서 봄이 머리가 된다. 그리하여 甲을 설명하면서 東方之孟이라 하였다.

단옥제가 孟春에는 하늘에서 天氣가 내려오고 땅에서 地氣가 올라가 天地의 기운이 함께 조화(天地和同)되어 싹이 튼다고 주석한 것은 설명이 좋다. 그리고 甲갑의 모습에서 冂를 종자의 外皮로 보고 丌을 줄기로 본 내용도 좋다. 이 줄기는 싹이 처음 올라 올 때의 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大一經』을 『한서·예문지』의 大壹兵法, 泰一陰陽, 泰一 등으로 유추하였는데 大一의 大는 이를 통해 볼 때 “태”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옛날에 大와 太 또는 泰는 통용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古公亶父를 武王이 大王에 봉했고 이를 太王으로 읽는 경우이다. 頭空의 空을 腔으로 본 것도 좋은 주석이다.

미리 설명을 하건대 太一經에서 甲頭, 乙頸, 丙肩, 丁心, 戊脅, 己腹, 庚臍, 辛股, 壬脛, 癸足을 배합한 것은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차례로 내려가면서 인체에 10干을 배합한 것인데 『周易』의 배합법과는 다른 독특한 배합이라고 볼 수 있다.

계복은 東方은 甲이 孟이 되고 卯가 仲이 되고 을이 季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의거해보면 南方은 丙이 孟이 되고 午가 仲이 되고 丁이 季가 되며, 西方은 庚이 孟이 되고 酉가 仲이 되고 辛이 季가 되고, 北方은 壬이 孟이 되고 子가 仲이 되고 癸가 季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왕균이 甲丙庚壬이 孟이 되고 乙丁辛癸가 仲이 된다고 한 주석은 앞은 맞으나 뒤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乙丁辛癸를 仲으로 보면 무엇을 季로 보아야 하는가?

또 계복이 聲訓(같은 音 또는 비슷한 音으로 訓釋하는 방법으로 音訓이라고도 한다)으로 孚를 浮의 뜻으로 보아 위로 사물이 뜬 것처럼 孚甲이 위에 있고, 孚를 覆로 보아 孚甲이 밖에 있는 것이라 하고 甲을 갑옷의 의미로 보아 사물이 갑옷 같은 孚甲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한다고 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太一經』을 緯書의 일종으로 본 것도 좋은 내용이다.

『正易原義』에서 만물이 꺾질이 쪼개져서 처음 나

오는 모습이라 하였으니 甲은 씨앗의 꺾질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꺾질이 쪼개져서 처음 싹이 트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古甲子 중 甲의 歲陽의 명칭인 關逢(알봉이 아니라 연봉으로 발음한다)을 始也라 하여 시작한다는 뜻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후의 연구를 기다려 본다.

甲은 陽氣가 始發하여 초목이 처음 싹이 트는 모습으로 萬物의 始生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일체 사물의 시작을 甲이라 하고 甲은 第一位가 된다.

乙은 甲에서 싹이 튼 것이 구부러져서 자라는 단계이다. 단옥제는 冤曲에 대해 기운이 퍼지지 못하고 울체되어 구부러졌다하였고 乙은 軋의 뜻으로 초목이 힘들게 자라는 모습이 마치 수레가 땅에서 굴러 갈 때 빠져터거리면서 잘 굴러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乙이 丨(발음은 ‘신’이다)과 같은 의미라는 것에 대해 乙이 싹이 터서 자라는 것과 丨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 같은 개념인데 乙은 위에서 陰氣의 방해로 받아 곧게 올라오지 못함으로 글자를 비스듬히 기울여 쓴 것이라 하였다.

계복은 乙丁己辛癸는 陰이 됴므로 陰氣尙強하다하였고 乙은 본래 扌에서 나온 글자로 扌는 버리고 乙만 취한 것인데 扌은 좁다는 뜻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與丨同意의 丨(발음은 ‘철’이다)은 卩로 해야 되니 徐鍇가 모두 出의 뜻이라고 한 것을 따르고 있다. 또한 어려울 屯자에 卩이 있는 것은 초목이 처음 나올 때 어렵게 나오는 모습이라 하였다.

왕균도 丨은 卩의 잘못이고 卩에는 出의 뜻이 있고 초목이 처음 생활 때 어렵게 나온다고 하였으니 계복과 의견이 일치한다.

『正易原義』에서 싹이 처음 나올 때 힘들게 나와서 구부러진 모습이 乙字와 같기 때문에 乙이라 한다 하였으니 핵심을 요약한 것이고 乙의 歲陽의 명칭이 旃蒙인데 이 뜻은 푸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 듯하다.

丙은 乙을 이어서 만물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단옥제는 一入門의 뜻이 陽이 문안으로 들어가 엎드리고 숨어 장차 휴손 되는 모습이라 하였

다. 계복도 陽의 단계가 끝나 음의 단계에 진입하는 때라 하였고 왕균은 구체적으로 음력 5월에 一陰이 始生하여 커나가고 陽이 그것을 기쁘게 맞이하려 가는 것이라 하였다. 이 모든 주석은 본문의 “陰氣가 처음 생겨나고 陽氣가 장차 휴손 되니 陽이 門안으로 들어가 숨는다”는 뜻을 循文敷衍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된다. 朱駿聲도 干支 22개의 글자에는 오류가 많고 後學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하였다.

丙은 乙을 계승한 것이니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때요 12달로 보면 丙은 夏之孟으로 초여름인 음력 4월에 해당한다. 이때부터 자라 음력이 5월의 하지 때에 이르면 비로소 一陰이 始生하여 陰氣初起하고 陽氣將虧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4월의 丙에 陰氣初起하고 陽氣將虧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陽氣가 휴손 될 이유가 없다. 『우주변화의 원리』에서도 夏至에 一陰始生하는 것은 丁에⁵⁰⁾, 冬至에 一陽始生하는 것은 壬에 배속하였다⁵¹⁾. 丙의 단계는 陽氣는 위로 뻗어나가고 陰氣는 아래로 내려가 위축된다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丙을 破字한 一入門과 一을 陽이라고 한 것을 陽氣가 門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석하지 않고 一을 陽氣上發의 모습으로 보고 丙을 陰氣가 내려가 문 속으로 들어간다(陰氣下入門)고 보면 丙의 단계를 설명하는 적절한 해석이 될 것이다.

『正易原義』에서 李斯文은 丙字를 一과 火가 숨겨진 글자라 했는데 丙을 어떻게 火로 해석한 것이지 알 수가 없고 丙이 陽老의 모습이라 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

丁은 丙의 단계를 이어 더욱 꽃피듯 자라는 단계이다. 丁實은 꽃피하면서도 충실하게 자라는 모습이라 생각된다. 丁은 人心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곳의 心은 심장이 아니라 몸의 중심, 명치끝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듯하다. 그 이유는 나머지 天干에서 5장과 배합된 것이 없고 머리, 목, 어깨를 이어 중

심을 타고 가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小篆에서 卅라 했는데 人은 초목의 가지와 잎이 위와 옆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고 丨은 아래에 있는 줄기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 丁은 튼튼하고 씩씩하게 단단하게 커나가는 단계이므로 壯也, 強也, 盛也의 뜻이 있고 사람에게서는 壯丁에 해당된다고 본다.

『正易原義』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이라 했는데 小篆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彊圍赤의 의미도 정확치는 않지만 우선 丁의 歲陽名은 彊圍인데 붉다는 뜻이다라고 해석해본다. 또 丁에 丁寧於其變之前이라 하였다. 丁寧은 사전에 “軍中에서 쓰는 鉦 비슷한 악기로 戰時에 쳐서 군사들이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轉하여 재삼고함, 되풀이하여 알람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丁은 발전의 단계를 마치고 변화해야 할 곳임으로 이렇게 말한 듯하다.

戊는 丁을 이어 더욱 무성하게 자라는 곳이다. 단옥제는 六甲五龍을 六甲五行이라 보고 있다. 相拘絞는 서로 껴안고 꼬여진 모습이다. 따라서 六甲五行相拘絞는 六甲속에 五行이 모두 배치되어 있다는 뜻인 듯하다.

계복은 惠棟의 說을 인용하여 五와 六이 天地의 중앙에 해당하므로 5와 6이 서로 결합한다 하였고 五龍을 五辰으로 보고 辰에는 5자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著者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六甲五龍相拘絞는 六甲五子相拘絞로 볼 수 있다. 相拘絞(껴안을 拘, 꼬일 絞)는 서로 결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天干과 地支가 결합하는데는 5와 6의 원리가 들어있다. 天干에서 戊己는 중앙 토에 속하고 天干의 순서에서 戊는 다섯 번째에 위치하고 己는 여섯 번째에 위치한다. 또한 5와 6은 天地의 中數로써 변화의 中心數이다. 이 5와 6의 숫자가 바로 天干과 地支의 결합원리를 나타낸다. 10干과 12支를 결합하면 60갑자가 나온다. 이때 매개의 天干은 6회 반복되고 매개의 地支는 5회 반복된다. 이를 干支의 첫 글자를 따서 6甲과 5子라고 말한다. 좀 더 설명하면 60甲子를 놓고 볼 때 甲丙戊庚壬의 陽

50)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29.

51)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34.

干은 子寅辰午申戌의 陽支와 결합되고 乙丁己辛癸의 陰干은 丑卯巳未酉亥의 陰支하고만 결합한다. 甲을 例로 들면 甲이 들어가는 甲子(干支相合)에는 甲子, 甲戌, 甲申, 甲午, 甲辰, 甲寅의 6甲이 있고 子가 들어가는 甲子에는 甲子, 丙子, 戊子, 庚子, 壬子の 5子가 있게 된다. 즉, 六甲五龍相拘絞는 干支가 相合할 때 戊가 다섯 번째 己가 여섯 번째 위치하듯 天地의 中數인 5와 6이 작용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正易原義』에서 戊는 무성할 茂자의 뜻이라 했고 先天 중앙의 자리라고 했다. 正易에서는 天干이 先天에서는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로 돌아가고 後天에서는 己庚辛壬癸甲乙丙丁戊의 순서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戊는 다섯 번째에 위치하니 先天 中央의 자리가 된다.

己는 무성하게 자랐던 戊를 계승하여 고요히 머물면서 수렴을 시작하는 자리이다. 단옥재는 辟藏을 盤辟收斂이라 하였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빙빙 돌면서 안으로 오그라들고 수렴되는 뜻으로 보았다. 계복은 甲에서 戊까지 자라고 다시 己에서부터는 下向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자리라 하였다. 왕균은 己字의 모습이 그 자리에 머물러 빙빙 돌며 안으로 수렴되는 형태가 있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은 모두 수용할 수 있다.

『正易原義』에서는 己가 사람이 입을 벌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기에 때문에 身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己를 몸기(己)字의 의미로 본 것이고 모든 식물의 몸은 己에서 완성됨을 말한 것이다.

己는 正五行과 化氣五行에서 모두 10土가 된다. 先天位는 中央이 되고 後天宮은 己庚辛壬癸甲乙丙丁戊로 헤아리니 첫 번째 자리가 된다. 후천은 10己土에서부터 統一이 시작되어 1태극을 완성하니 無極에서 태극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李斯文은 屠가 ‘죽일도’字여서 古干의 屠維를 陰氣가 만물을 죽인다는 뜻으로 보았고 식물이 죽으면 누렇게 됨으로 黃이라 한듯하다.

庚은 己를 이어 가을에 열매가 단단하게 익어 주렁주렁 열린 것이다. 庚은 甲乙木, 丙丁火에서 생장

한 만물이 戊己土를 지나 성장하던 것이 變更되어 단단하게 열매를 맺은 것이다. 庚은 更(바뀌다)과 硬(단단하다)의 뜻으로 볼 수 있다.

『正易原義』에서는 책력에서 19년에 7번의 윤달을 두어 음양력의 오차를 줄이는데 19년을 一章이라고 한다. 이에 의거하여 庚이 7번째에 있고 古干名이 上章이라 이를 결합하여 설명했는데 庚을 上章이라 하고 庚에는 고르게 하는 뜻이 있으므로 一章에서도 이 뜻을 취한 것이다.

辛은 열매를 맺는 庚을 이어 더 성숙하여 이 열매에서 맛을 내는 것이다. 본문에서 辛은 매운 맛이고 매운 맛을 먹으면 눈물이 나고 죄인은 눈물을 흘린다하였다. 辛을 파자하면 一과 辛(音은 건)이 결합된 글자로 一은 陽을 나타내고 辛에는 罪의 뜻이 있는데 辛을 죄인과 연결시킨 것은 매운 맛을 먹으면 눈물이 나고 죄인은 눈물을 흘리므로 연결시킨 듯 하나 무리가 있다.

『正易原義』에서 辛을 10土라 한 것은 辛의 正五行은 庚辛이 金이고 辛이 陰金임으로 4金이 된다. 辛의 化氣五行은 丙辛水이고 역시 辛이 陰水임으로 6水가 된다. 4와 6을 합하면 10이 되기 때문에 10土라 한 듯하다. 辛의 때는 추수를 하는 때임으로 粒米가 낱자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辛에는 새로워진다는 新의 뜻이 있다고 하였는데 辛은 陰氣가 생해지는 때이면서 새로운 生機가 잠복하는 때이다.

壬은 辛을 이어 陰氣가 왕성한 가운데 陽氣가 속에서 태동되는 때이고 사람에게서는 임신을 하는 때이다. 단옥재는 『석명』을 인용하여 음양이 交媾하여 壬에서 임신했다가 子에서 낳는다고 하였다. 또 坤上六爻의 龍戰于野는 亥의 단계에 陰이 極盛하고 陽이 없기 때문에 陰이 陽과 交媾(戰)하여 陽生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天干의 壬과 地支의 亥가 合德함으로 본문에서 亥壬을 함께 말했다고 하였다.

왕균은 金文에서 壬은 冫으로 쓰는데 임신하여 배가 부른 모습이라 했고 嚴可均이 亥壬을 辛壬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지만 亥와 壬이 모두 북방에 있고 亥도 懷子의 뜻이 있고 壬도 妊의 뜻이 있어 亥壬이

옳다고 하였다. 24방위에는 乾亥壬이 모두 서북쪽에 있으므로 이 설이 옳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太一經』의 壬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任의 뜻이라고 하였다. 이상 모두는 타당한 내용이라 사료된다.

『正易原義』에서는 한편으로는 壬의 단계에서 大任을 마치고, 또 한편으로는 아래에서 陽氣를 壬養한다고 하였다.

『太一經』에서 壬은 下腿에 배합되고 壬은 任의 뜻이 있다고 했지만 下腿에는 장판지가 있고 장판지는 볼록하여 입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있다고 보아도 좋은 듯하다.

쫓는 만물이 조용히 휴식하면서 다음해 봄을 맞이해 다시 소생할 것을 기다리면서 헤아리고 있는 때이다. 『正易原義』는 쫓를 둘로 나누어 𠄎를 水의 뜻으로 보아 水와 天이 합한 글자라 하였다. 天에서 天一生水를 취하고 水에서 水六을 취하여 水生木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李斯文은 古干에서 陰에 해당하는 歲陽에만 旃蒙青(乙), 強圉赤(丁), 屠維黃(己), 重光白(辛), 昭陽黑(癸)이라 하여 五色을 배합하였다. 著者는 우선 歲陽의 뜻이 그 색깔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으나 知者를 기다려 본다.

이상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甲은 씨앗에서 싹이 터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乙은 어린 싹이 구불구불 자라는 모습이고, 丙은 陽氣가 상승하여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때이고, 丁은 싹씩하게 자라고 크게 자라는 것이고, 戊는 자란 것이 무성해진 것이고, 己는 성장을 멈추고 수렴을 준비하는 때요, 庚은 陽道에서 陰道로 바뀌어 열매를 맺는 때이고, 辛은 열매가 성숙되고 새로운 生機가 잠복되는 때요, 壬에서 陰陽이 만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쫓는 새봄을 맞이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를 보면 10干의 순서는 草木의 한살이에서 뜻을 취했는데 그 이유는 一年의 변화 속에서 그 단계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초목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7. 結 論

干支의 역사와 意義 및 『說文解字』에서 설명한

10干과 說文四大家의 주석 그리고 『正易原義』의 十干 해설에 關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으로 干支를 창시한 사람을 大撓라고 하나 盤固가 三危山 拉林洞窟에 올 때 十干十二支之神將을 거느렸다 했으니 干支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1에서 10까지 자연수의 중심수는 5와 6이고 이것이 陰陽이 되어 天地에서 오운육기로 작용한다. 그리고 오운과 육기에는 모두 태과불급의 음양이 있으므로 $5 \times 2 = 10$, $6 \times 2 = 12$ 가 되어 天과 地의 변화를 총괄하는 10干과 12支가 유래하였다고 사료된다.
3. 劉溫舒는 干支속에는 至精至妙한 義理가 있어 음양오행의 德을 파악할 수 있다 하였고 李斯文은 干支자체에 10과 12의 뜻이 있고 干은 幹으로 木之體, 乾體의 뜻이 있고 支는 枝로 木之用, 坤用의 뜻이 있어 體用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였으며 韓東錫은 干에는 統一된 水, 支에는 分裂된 火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4. 『說文解字』에서 丙을 陰氣初起 陽氣將虧라고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丙의 一入門의 뜻은 陽氣는 上發하고 陰氣는 下降하여 入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5. 戊의 六甲五龍相拘絞는 六甲五子가 結合한다는 의미로 60甲子가 순환하는 가운데 天干이 6회 반복하여 6甲을 이루고 地支가 5회 반복하여 5子(즉 五龍)를 이룬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6. 『大一經』의 甲頭, 乙頸, 丙肩, 丁心, 戊脅, 己腹, 庚臍, 辛股, 壬脛, 癸足은 周易의 배합법과도 다른 독특한 배합법으로 緯書의 내용에서 가져온 듯하다.
7. 10干의 글자의 뜻은 초목이 싹이 터서 자라고 성장을 멈춘 다음 열매를 맺고 陰氣가 極해지는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새봄을 기다리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다시 말해 초목의 한살이에서 글자의 의미를 취했는데 이는 1년의 변화 속에서 마디마디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초

- 목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8. 10干에는 甲은 甲(씨앗의 껍질), 乙은 軋, 丙은 炳, 丁은 壯 혹은 強, 戊는 茂, 己는 己(몸기) 또는 巳(그칠이), 庚은 更, 辛은 新, 壬은 妊, 癸는 揆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訓詁學에서 聲訓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9. 『正易原義』의 10干에 대한 해설은 先後天的 해석이 특징을 이루며 독특한 내용이 많이 있다고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7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o.2015R1D1A3A01018249).

References

- Kangbon WJ. Ungironoeonhae 1. Unknown. 1704. 岡本爲竹. 運氣論奧諺解 卷之一. 미상. 1704.
- Gye B ed.. Seolmunhaejaujeung. Jenam. Jenoseosa. 2013. 桂馥撰. 說文解字義證. 濟南. 齊魯書社. 2013.
- Dan OJ ed.. Seolmunhaejaju. Seoul. Daeseongmunhwasa. 1990.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 Dongapublishing Chinese and Korean Dictionary editorial department. Donga Chinese and Korean Dictionary. Seoul. Dongapublishing. 1982. 동아출판사한대사전편찬부.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2.
- Ri EG, Ga OM ed.. Munbaekdaejo Seolmunhaejayeoksul. Chongju. Jungwonnongmin publisher. 2002. 李恩江, 賈玉民 主篇. 文白對照說文解字譯述. 鄭州. 中原農民出版社. 2002.
- Songha GR. Ungironosocho 2. Unknown. 1665. 松下見林. 運氣論奧疏鈔 卷之二. 미상. 1665.
- Wang G ed.. Seolmunhaeja Sentence reading. Beijing. Zhonghua Bookstore. 1988. 王筠撰. 說文解字句讀. 北京. 中華書局. 1988.
- Yoo OS original work. Chang RP ed.. Beijing. Hakwonpublisher. 2010.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北京. 學苑出版社. 2010.
- Yun CY. Additional edition Philosophy of Medicine. Daejeon. Juminpublisher. 2011. 尹暢烈著. 增補版 醫哲學. 대전. 주민출판사. 2011.
- Lee GG. Jeongyeokwonui. Seoul. Dongmungwan. 1913. 李景直. 正易原義. 서울. 東文館. 1913.
- Joo JS. Seolmuntonghunjeongseong. Beijing. Zhonghua Bookstore. 1998.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北京. 中華書局. 1998.
- Jeung SJ. Saryakeonhae. Seoul. Sechangseogwan. 1982. 曾先之. 史略諺解. 서울. 世昌書館. 1982.
- Han DS. Principle of Universe Change. Seoul. Daewonpublisher. 2001. 韓東錫. 宇宙變化的原理. 서울. 大原出版社. 2001.
- Baik YS, Kim DH.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Wuxing and Ganzhi in Suwenrushiyunqilunao and Wuxingdayi.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6. 29(3). 백유상, 김도훈. 『소문입식운기론오(素問入式運氣論奧)』와 『오행대의(五行大義)』의 오행(五行) 및 간지(干支)에 대한 해석(解釋) 비교(比較) 연구(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16. 29(3).
- Yun CY. A Study on Ten heavenly stems: Twelve earthly branches and Five Elements Evolutions:Six kind of Natural Factors. Seoul.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 1987. 윤창열. 干支와 運氣에 관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87.